



[소비동향] 中, 유제품 소비량 증가세

- 소득 증가 및 기능성 유제품 소비 활성화로 일인당 유제품 소비량 크게 늘어



소득 증가 및 기능성 제품 소비 활성화로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중국낙농협회(DA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내 소득 증가로 유제품 등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일인당 우유 소비량이 2020년 대비 10.6% 증가하며 14.4kg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식품 공급과 안정적인 제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당국이 1인당 하루 유제품 섭취량을 300g으로 권고하는 등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유제품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 유제품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능성 유제품 개발은 물론 탄소배출 감소 등 저탄소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foodnavigator-asia.com, 5월 15일 >

[마케팅] 美 낙농협회, 학교 영양 프로그램 통해 유제품 홍보 나서

-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의 이해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 목표



미국 뉴욕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산 유제품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근 미국낙농가협회 북동부지사(ADANE)는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매주 목요일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홍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Z세대 낙농가부터 유명 풋볼리그(NFL) 선수들을 통해 학교 급식에서 공급되는 우유와 유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영양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등 교내 예산에 맞는 유제품을 활용한 급식 메뉴는 물론 유제품 영양 교육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학교 급식에서의 필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유제품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5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